

GIST 박기홍 교수팀, 에어로졸 성분 실시간 분석 기술로 ‘안강호어워드 대상’ 수상

- 환경·에너지공학과 박기홍 교수 연구팀, 2025년도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수상... 에어로졸 실시간 분석 기술로 국내 측정기술 한 단계 도약
- 비실시간·고가 장비 한계 극복한 창의적 연구성과 인정... 실내외 대기질 분석·보건 정책 기여 기대 “실시간 분석 기술,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”



▲ (왼쪽부터) 환경·에너지공학과 박기홍 교수, 김기백 박사 졸업생(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 연구원)

- 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환경·에너지공학과 박기홍 교수 연구팀이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 2025년도 정기 학술대회에서 ‘안강호어워드 대상’을 수상했다고 밝혔다.
- ‘안강호어워드’는 입자 및 에어로졸 분야에서 탁월한 학술적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, (주)에이알티플러스가 한양대 안강호 명예교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에 기부한 기금으로 제정됐다.
-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가장 우수한 논문을 매년 선정해 ‘안강호어워드’를 시상하고 있으며, 에어로졸 분야의 창의적이고 영향력 있는 연구 성과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데 힘쓰고 있다.
- * **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:**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는 1994년 창립된 국내 대표 에어로졸 전문 학술단체로, 대기 중 미세입자, 반도체 공정 오염 입자, 나노소재 입자, 바이오 에어로졸, 원자력 관련 에어로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 및 응용 융합 연구를 주도해 왔다. 최근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, 코로나19 공기감염 경로 규명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정책 결정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.
- 박기홍 교수 연구팀이 수상한 논문은 탄소성 에어로졸의 원소 성분비를 실시간으로

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연구로, 기존의 비실시간 분석 방식이나 고가 장비에 의존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에어로졸 측정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.

- 이 기술을 활용하면 실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에어로졸의 생성 원인과 배출 경로,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어, 대기 질 관리 및 환경·보건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박기홍 교수는 “이번 수상을 계기로, 한국의 에어로졸 성분 실시간 분석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생 및 연구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를 이어가겠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
□ 한편, 시상식은 지난 7월 3일(목), 강원도 용평에서 열린 ‘2025년도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 정기학술대회’에서 진행됐다. <끝>